

# 베냉, 우리가 몰랐던 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 비추는  
작지만 큰 거울

아프리카마치 Africa March



AFRICA  
MARCH

베냉,  
우리가 몰랐던 아프리카



아프리카마치 03

# 베냉, 우리가 몰랐던 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 비추는  
작지만 큰 거울



AFRICA  
MARCH

## 머리글

카보베르데와 에스와티니에 이어 아프리카마치가 세 번째로 선보이는 나라는 ‘베냉(République du Bénin)’입니다. 1600년경에 세워진 다호메이 왕국(Royaume de Dahomey)이 뿌리인 베냉은 1894년에 프랑스령 다호메이(Colonie du Dahomey)가 되었다가 1960년 다호메이 공화국(République du Dahomey)이라는 이름으로 독립, 1975년에 베냉 인민공화국(République populaire du Bénin)이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와 토고 사이에 위치한 베냉은 기니만(Gulf of Guinea)과 접하면서 내륙 방향으로 길게 뻗어 들어간 나라입니다. 프랑스 식민 통치의 영향으로 공용어는 프랑스입니다. 다양한 ‘밈(Meme)’을 통해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줌비의 근원인 ‘부두교’ 발생지이며 여전사 왕국으로 서방세계에 그 용맹을 떨쳤지만 ‘노예의 길’과 ‘노예항’으로 알려진 서글픈 역사 또한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베냉을 선택하고서도 저희 아프리카마치의 구성원은 많은 고민

을 했습니다. 사전조사를 통해 이 나라의 매력은 인지했지만 일반 독자들에게 베냉을 알려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앞선 카보베르데와 에스와티니의 경험을 통해 한 나라의 매력과 그 나라가 가진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수많은 서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이 작은 나라 베냉을 우리가 알아야 할 나라로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할 이유를 금세 찾지는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차례 워크숍을 통해 베냉을 알아갈수록, 저희는 이 작은 나라가 마치 수많은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대표인 것처럼 서아프리카의 여러 다양한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신기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식민지배와 노예교역의 잿빛 역사는 기본이고, 머나먼 한국인들에게까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묘하게 아름다운 문화와 예술, 역사가 조명을 거두어들이는 놀랍도록 멋진 사람들, 그리고 더 이상 변방에 머무르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의 기상까지, 베냉은 서아프리카의 다채로운 모습을 ‘작지만 큰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프리카마치의 다섯 저자들은 베냉에 대해 특별히 관심이 가는 자신만의 주제를 탐색하여 자유로운 방식의 글쓰기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20세기 초 여러 대륙을 넘나든 베냉의 한 흑인 인권운동가의 생애를, 두 번째 글은 베냉이 탄생시킨 부두교의 원형과 이에 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세 번째 글은 베냉 친구가 만들어준 음식을 맛보며 느꼈던 감정과 소소한 단상들을

적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글은 베냉의 한 스타트업 CEO의 이야기를 통해 베냉을 비롯한 서아프리카 스타트업의 전반적 현황을, 마지막 글에서는 베냉의 뮤지션과 철학자와 함께 ‘월드뮤직’이라는 모순된 단어를 통해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식민주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냉, 우리가 몰랐던 아프리카: 서아프리카를 비추는 작지만 큰 거울”의 ‘몰랐던’이란 단어가 암시하듯 저희는 한국의 많은 독자들에게 베냉이 ‘몰랐던’ 나라에서 ‘아는’ 나라로 탈바꿈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부르게 베냉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독자들에게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라고 강요하려 하진 않습니다. 예컨대 아프리카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식민지배와 노예제의 역사를 구구절절이 살피며 착취와 저항의 구도로 유도하기보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20세기 초 한 흑인 인권운동가의 치열했던 생애를 반추하며 식민지 지식인의 인간적 고뇌를 느끼고자 합니다. 베냉에서 생겨난 부두교를 다루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베냉 사람들은 물론 세계 각지 흑인 디아스포라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두교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단순한 흥밋거리로 소비됩니다. 역시 그런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국인’ 저자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부두교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고 애쓸 뿐이지요.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진지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베냉을 탐구하고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다. 글을 마감하고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저희는 만족스러움을 표했고, 그 기운은 독자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발간을 앞둔 지금, 뭔가 빠뜨린 건 없을까, 글의 진의가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선 밖에 머물렀던 아프리카 국가들을 알리려는 아프리카마치의 의도와 순수한 열정이 오해를 살 일은 없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맨 처음 이 일을 기획했을 때는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공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재미있고 보람도 있는 이 길을 더욱 힘차게 걸을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신발끈을 바짝 묶겠습니다.

2022년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길목에, 아프리카마치 일동

## | 차례 |

머리글	4
다호메이의 잊힌 지식인, 코조 토발루 우에누	9
베냉의 영혼, 부두교	47
음식의 디아스포라, 베냉 미식여행	67
/ 쉬어가기 /	86
Start-up? Start!	89
월드뮤직과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 안젤리크 키드조와 폴랭 웅통지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111
부록	138
참고문헌	142

# 다호메이의 잊힌 지식인, 코조 토발루 우에누

우리에게 낯선 베냉을 알리기 위한 첫 글로 아프리카마치는 과감하게 세계사의 뒤켠으로 사라진 한 흑인 운동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알면 그곳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죠. 흑인 운동가 이전에 그저 비범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식민주의와 저항’이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베냉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요.

1923년 8월 4일 새벽 2시경, 프랑스 파리(Paris) 18구 몽마르트(Montmartre)에 있는 카바레 엘가롱(El Garon)에 세련된 정장을 차려입은 흑인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카바레 안에는 사람들의 소음 뒤로 낭만적인 탱고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지요. 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흑인과 그 일행은 마지막으로 삼페인 한 잔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 때 일행을 안내했던 웨이터가 다급히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클럽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미국인들이 그들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에는 흑백 분리주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던 터라 미국인의 정서로는 공공장소에서 흑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분노한 흑인은 격렬하게 저항하지만 매니저와의 실랑이는 몸싸움으로 이어지고 결국 거리로 쫓겨나게 됩니다. 20세기 초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원주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sup>1)</sup>를 전파한 이 흑인 남자의 이름은 코조 토발루 우에누(Kojo Tovalou Houènou, 1887-1936)입니다.

토발루라는 인물은 꽤나 다양한 인물로 묘사됩니다-고상하고 유순한 지식인, 잘난 척 허세있는 사람, 파리 상류사회의 인사이더, 다호메이(Dahomey)의 철학자 혹은 뻔뻔한 야심가. 사실 그에게 따라붙는 이런 수식어들은 토발루라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담기에는 그 언어의 무게가 너무 가볍습니다. 왕족의 후손으로 내뿜는 아우라와 타고난 웅변가로서의 모습이 그를 형용하는 위의 문구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에요. 그가 식민제국에 맞서는 흑인 운동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베냉의 역사에서 더 쉽게 토발루의 이름을 마주칠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라도 족적을 남겼을 만한 인물이었으니까요.

토발루는 1887년 다호메이의 수도인 포르토노보(Porto-Novo)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베냉의 역사에서는 다호메이 왕국이 유명하지만 1894년 다호메이가 프랑스에 점령되기 전까지 다호메이와 포르토노보는 서로 이웃하고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포르토노보는 다호메이보다 훨씬 앞선 1863년에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는데요, 강국이었던 다호메이와 나이지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사이에서 양쪽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프랑스군의 주

---

1) 식민주의에 대한 흑인의 저항 운동은 정치, 사회, 문화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으며 그 구체적인 형태로는 범아프리카주의와 네그리튀드(Négritude) 운동이 있다. 범아프리카주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흑인(흑인 디아스포라)들의 해방과 연대를 호소하고 흑인 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상으로 1900년대 전후 영어권의 사회정치적 담론으로 시작해 1960년대에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 및 통일기구 설립의 정신적 기반이 된다. 한편 네그리튀드는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 출신 흑인 작가들을 중심으로 문학을 통해 흑인 고유의 정체성 복원을 강조하였으며 후에는 문화정치운동으로도 확대된다. 토발루는 네그리튀드 운동의 선구자로도 불린다.

둔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다호메이 식민지와 그 속국’에 포르토노보가 편입되었고 1900년에 다호메이의 수도가 됩니다.

토발루의 어머니는 다호메이의 마지막 왕인 베한진(Béhanzin, 1845-1906)의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발루는 왕의 조카인 셈이지요. 1920년대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전 토발루는 보르도(Bordeaux)에서 약 11년간 유학생살을 합니다. 바로 이 시절에 그는 프랑스의 전형적인 부르주아적 생활양식과 문화를 습득하게 되지요. 토발루는 철학, 문학, 음악 등 그야말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며 지적 충만을 만끽합니다. 대학에서 법학뿐만 아니라 의학

도 공부한 덕에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 의무병으로 자원해 복무하고요. 이듬해 겨울, 부상을 입어 의병제대를 한 뒤에는 전쟁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앞으로 살펴볼 토발루란 인물의 인생은 시대와 공간의 역동성과 함께 해야 그 모습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다호메이에만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절반이 넘는 인생이 식민지 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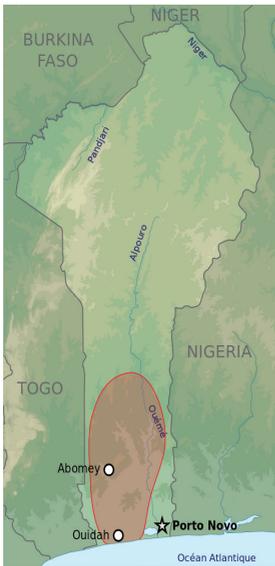


그림1. 다호메이 왕국과 포르토노보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게다가 당시 베냉은 독립국가가 아닌 프랑스령 서아프리카로 통합된 피식민 외곽지역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림2. 포르토노보

## 아프리카 아이의 어린 시절 - 19세기 말 변혁의 다호메이

‘코조(Kojo)’라는 이름은 아프리카의 관습에 따라 월요일에 태어난 아이에게 지어주는 이름입니다. 폰(Fon), 구엔(Guen), 아칸(Akan)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 요일과 성별에 따라 이름을 지어 주었죠. 당시 다호메이에서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토발루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개종을 했다고 해서 오로지 가톨릭만을 신봉하지는 않았어요. 가톨